

추모사

백암(白岩) 최성진(崔成眞) 교수님을 추모하며

조 인 숙*

선생님, 봄이 왔어요. 산수유 꽃망울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아요. 이제 개나리, 진달래가 온천지를 뒤덮을테고 벚꽃이 화사하게 피는 좋은 계절이 올텐데요. 선생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계시지 않네요. 지난 겨울바람이 그렇게도 매서웠나요? 겨울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시지도 못하고 봄이 오는 문턱에서 그렇게 홀연히 떠나시게요. 남아 있는 저희들은 졸지에 선생님을 보내드리고 너무 희망하고 안타까워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전혀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난 1월에 검사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조금 약해지신 것으로만 알고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늘 그렇듯이 다음에 저희들 만나시면 웃으면서 지나간 이야기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게 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급하셔서 아무 말씀도 안 남기시고 그렇게 빨리 떠나셔야 했었는지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항상 좋아하시던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게 될텐데 보시고 가셨더라면 더욱 좋았을텐데요. 작년 3월, 선생님 댁 베란다에 흐드러지게 피었다던 영산홍 이야기를 제게 메일로 보내주셨지요. 그 꽃을 관찰했더니 떨어질 때까지 시들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더라, 떨어진 꽃을 주워 보아도 나무에 달려있는 꽃과 다르지 않더라, 색이며 모양이며 윤기까지 그대로인 그 꽃을 닮은 삶을 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선생님께서 그 꽃을 닮은 삶을 살다 가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꽃과 나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언제나 저희들을 놀라게 하셨지요. 학생들과 여행을 다니실 때 보면 나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피력하시고 자세히 설명하셔서 '나무박사'라고 불려드렸던 생각도 납니다. 늘 새를 키우셨던 것 같고 카나리아의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듣기 좋다고 하시던 걸 보면 자연을 가까이 하며 사랑으로 보살피는 마음이 남달랐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늘 깔끔하신 성격 때문에 군더더기 같은 것을 싫어하셨지요. 항상 과한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모든 면에서 넘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셨고 남에게 폐가 되는 일이라면 극구 사양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 까닭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 때문에 수고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고 조용히 떠나셨던 거겠지요. 그러나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문헌정보학과 교수, ischo@hansung.ac.kr

선생님의 그 완벽함 때문에 옆 사람들이 얼마나 기죽었던지는 잘 모르시겠지요? 선생님의 뒤를 쫓아가기란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문장력이 굉장히 좋으셨는데 그것은 논리적이고 긍정적이며 선한 사고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한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짧은 글에도 좋은 표현을 하시느라 늘 고심하시고 학생들의 추천서 한 장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쓰시던 일, 정년퇴임하시는 원로교수님들의 송공사를 쓰시면서 문장 한 줄 한 줄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의 자세는 정말 후학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어찌 저처럼 아둔하고 글재주도 없는 제자가 감히 선생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글로써 읊긴다는 자체가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뵈던 때는 1972년 대학 4학년 1학기 '정보학원론' 강의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전 학년까지만 해도 개설되지 않은 새로운 교과목이었지요. 제가 정보학을 전공하게 된 계이기도 했지만 그때 저희들은 새로운 학문으로서 굉장히 신선하게 느꼈고 선생님께서 열정적으로 가르치셔서 저희들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늘 깨끗한 자세로 금테 안경을 쓰시고 007가방을 들고 대성로를 걸어올라 오시던 그때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 미국에서 돌아오셔서 새로운 분위기로 저희에게 강의하셨고 미래사회에서 정보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미8군 도서관에 견학가서 펀치카드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현장을 보여주셔서 새로운 시스템을 보고 감동하던 일들이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선생님께서 한국문헌정보학회 회장을 맡으셨을 때 외국의 문헌정보학의 모방이 아니라 한국형 문헌정보학의 정립을 위하여 3개 학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셨고 년 1회 발간하던 학회지를 년 2회로 늘리신 일 등 열정적으로 일하셨으며 성균관대학교 재직시에 다양한 보직들을 맡으셔서 학교발전 뿐만 아니라 학과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크셨다고 생각합니다. 후학들의 지도에도 열심히셔서 많은 석·박사를 배출하셨고 국내의 정보학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그런 선생님께 제자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두고 두고 저희들의 가슴 속에 회한으로 남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키우시며 23년간이나 몸바쳐오신 대학에서 정년 한 학기를 앞두고 대전 혜천대학의 학장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바람에 퇴임 행사나 고회 기념행사 한번 제대로 해 드리지 못하였던 불출한 제자들이었기에 삼가 용서를 빌어봅니다. 대전에 가서서도 전문대학의 어려운 환경을 정상화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걸 보면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부지런한 모습에는 그저 고개가 숙여질 뿐입니다. 대학 안에 훌륭한 교회도 세우시고 국내에서는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종탑과 첨단도서관 건립 등 학장 재임기간에 이루신 업적은 참으로 많아 보입니다. 학장 6년 재임을 마치고 이사장으로서 학교발전에 노심초사하시던 모습을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7-8절이 생각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오로가 말년에 쓴 서간문은 선생님께서 원로교수님의 송공사에 자주 인용하시던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선생님께도 딱 들어맞는 성경말씀이 아닌가하여 적어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기독교회 신앙심 깊은 장로로서 최선을 다하여 사셨으므로 하늘에서 반드시 그에 합당하는 후한 상급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낯선 객지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안으로 슬픔과 외로움을 삭히며 살아오셨을까, 또 늘 관대하시고 남을 배려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슴 속에 담아두고 사셨을까 하는 것들이 선생님 이 안 계신 지금 하나하나 가슴에 와 닿습니다. 죽어서나마 고향땅을 바라보시기 위해 파주 통일동산에 묻히신 걸 보면 55년의 긴 시간 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망향의 그리움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한 채 묵묵히 살아오신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던 선생님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지 알 수는 없지만 높으신 그 뜻을 기려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미소 잃지 않으며 열심히 연구하고 후학을 가르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천국에 드시어 이 땅에서 만나시지 못한 부모님과 형제분들과 해후하시고 하느님 품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2006. 3.

제자 조인숙(曹仁淑)이 삼가 드립니다.



故 백암 최성진 교수님

업적

- **저서**
 정보학원론, 아세아문화사, 1976.
 정보사회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0.
 National Information Networks for th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Sung Kyun Kwan Univ. Press, 1982.
 Guidelines for the Formulation of National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Policies, 1986.
 도서관학동론, 아세아문화사, 1987.
 정보봉사론, 아세아문화사, 1992.
- **연구논문**
 "정보교육의 개혁방안 연구" 등 39편 발표.
- **수상**
 1980년 한국도서관협회 연구상

약력

- 1932. 6. 18. 평안북도 선천군 수청면 고음동에서 최재준씨와 김진옥씨의 여섯 형제 중 넷째 아드님으로 출생
- 1951. 1.4후퇴 때 월남
- 1957. 신병옥 여사와 결혼, 슬하에 네명의 아들들, 손자 한명과 손녀 6명을 댈
- 1954.~1958. 국제대학 영문과 수학
- 1969.~1970. 미국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서관학 석사 학위 취득
- 1971. 미국 덴버대학교 정보학과정 수료
- 1973.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도서관경영과정 수료
- 1977.~1979. 영국 러프버리 대학교에서 정보학과정을 이수, 1979년 동 대학교에서 정보학 박사학위 취득
- 1958.~1968. 서라벌고등학교 교사
- 1968. 캐나다 뉴펀들랜드주 공공도서관 편목주임
- 1970. 미국 캔자스대 동아시아도서관 부관장
- 1971.~1972. 서라벌예술대학 도서관장 및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 부교수
- 1973.~1997.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1997.~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1988.~1990. 한국문헌정보학회 회장
- 1997.~2003. 대전 해천대학 학장
- 2003.~2006. 대전 해천대학 이사장